



‘대학국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기조발표

최명옥(국어국문학과 교수), 장소원(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선경(대학국어 강사)

발표자

이창환(미학과 · 기초교육원 인문학주임교수) 홍기현(경제학부 · 기초교육원 사회과학주임교수)
민은기(작곡과 · 기초교육원 예술학문분야주임교수) 김호영(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공대 교양교육관리위원)
박찬섭(법학부 · 부총학생회장)

토론자

김남두(인문대 철학과 교수) 이준규(자연대 물리천문 학부 교수)
이학래(농생대 교무부학장) 이근관(법대 교수)
윤희원(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지난 10월 5일 인문대학 교수회의실에서는 '대학국어'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은정 기초교육원장 및 '대학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교·강사, 대학국어 전임대우 강사, 그리고 각 단과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번 '교양교육정보'에서는 이날 있었던 발표 및 토론내용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수록한다.

교과목의 목표와 방향

이날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바로 대학국어의 기본목표였다. 먼저 최명옥 교수(국어국문학과)는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글쓰기'를 대학국어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학술문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학국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장소원 교수(국어국문학과)도 "전공영역으로 들어가 학문적 글쓰기를 하기 이전의 기초적인 준비를 시킴으로써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대학국어의 목표라고 하였다.

이날 참석했던 다른 단과대 관계자들도 대학국어의 목표를 글쓰기 능력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어떤 글쓰기를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김호영 교수(기계항공공학부)는 공대에서는 기술적인 논문(Technical Writing)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학국어에서 쓰는 글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학래 교수(농생대 교무부학장)는 이공계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홍기현 교수(경제학부·기초교육원 사회과학주임교수)는 "공문이나 보고서, 신문기사, 방송 및 연설 원고, 광고카피, 인터넷 댓글" 등 실제 학생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실용문을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민은기 교수(작곡과·기초교육원 예술학문분야주임교수)는 음대 학생들에게는 학술적인 논문작성법보다는 맞춤법이나 보고서 작성법 등 보다 실용적인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양과목이냐 도구과목이냐?

기초적인 글쓰기를 교육하는 교과목으로서 대학국어가 교양과목이냐 도구과목이냐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신선경 강사(대학국어)는 미국에서 글쓰기는 지식습득을 위한 도구이자 사회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근관 교수(법학부)는 과거의 대학국어는 교양과목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도구과목으로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창환 교수(미학과·기초교육원 인문학주임교수)는 글쓰기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국어가 글쓰기에 치중한다면 글쓰기 교과목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하면서 대학국어는 교양과목으로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희원 교수(국어교육과)는 도구교과라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교유의 내용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교양과목이 아닌 도구과목으로 대학국어의 위상과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명칭 또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근관 교수는 '대학국어'의 강조명으로는 도구과목에 대한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김남두 교수(철학과)도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언어(language)'라고 하는 일반 명사 밑에서 글쓰기 교육을 한다고 밝히고, '국어'라는 명칭을 고수할 경우 가르치는 내용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글쓰기’ 등 다른 교과목과의 연계

참석자들은 대학국어와 글쓰기를 담당하는 다른 교과목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지적하였다. 과학과 기술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인문학 글쓰기 등 글쓰기 관련 교과목과 글쓰기를 강조하는 핵심교양 교과목 등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면서,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근관 교수는 “글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도구과목의 성격이 강해진다면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대의 전공글쓰기인 법률문장본과 대학국어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영 교수는 공대 내에서는 기초 글쓰기 과목과 이공계열 글쓰기 과목을 나누어 각각 2회점의 두 과목으로 개설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진경 교수는 미국대학에서 글쓰기 교과목은 독립된 운영기관에 의해 전담되고 있으며 글쓰기 분야의 전문가를 전임교원으로 초빙하여 장기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교수법을 개발한다고 하여 글쓰기 관련 교과목이 하나의 기관에 의해 통합·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한자어 시험에 관한 논란

장소원 교수는 현재 대학국어에서 두 차례 실시되고 있는 한자어 시험은 학생들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문자가 아닌 우리말의 일부로서 한자어 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한자를 익힐 수 있고 교재에 충분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분반과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한자어 시험의 비중을 이번 학기부터 15%로 축소하고 실용한자어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하였다.

김호영 교수는 이공계열에서도 한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를 익히는 것은 필요하며 학생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난해한 한자를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한자시험은 유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준규 교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한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한자로 인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홍기현 교수 또한 한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수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한자의 원리도 가르치지 않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수업강도에 대하여

이 자리에는 학생대표로 박찬섭 군(법학부·부총학생회장)이 참석하여 한자시험과 조별과제로 인한 과도한 수업부담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장소원 교수는 2007년도 1학기 강의평가 결과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할애한 시간은 전체 기초교양 교과목이 2.54시간인 데에 비하여 대학국어는 2.11시간으로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대학국어가 힘들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수업의 강도가 오히려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남두 교수는 “전반적으로 교양과목이 너무 쉽고 너무 조금 가르친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쉽게 학점 따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수업의 난이도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비판도 있었다. 이근관 교수는 의교체가 많고 문장이 어려운 현재 교재의 지문들이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재의 지문이 단순하고 평이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학래 교수는 오히려 교재의 지문이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심도 있는 메시지나 논리전개를 읽을 수가 없다고 하였고, 이준규 교수도 교재의 지문이 지나치게 평범하고 대중적인 문장이 많으며 논리적 수준과 사고수준도 낮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윤희원 교수는 대학국어 교재가 서울대 학생들로서 다루어 볼 만한 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소원 교수는 현 교재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나올 교재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수업 운영방식

전강별로 차별화된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학래 교수는 대학국어의 수강생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학생의 구분없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분리하여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필요한 글쓰기를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은기 교수는 같은 음대 중에서도 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준규 교수는 전공을 따로 구별하기보다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생대표로 참석한 박찬섭 학생은 대학국어 수업의 목적에는 한 명 한 명 서열을 매기는 방식인 상대평가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S/U의 평가방식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정리 : 편집부 / 사진 : 유현경